

第69回SGRAフォーラム

第7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歴史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

2022年8月6日(土) 午後2時～午後5時(日本時間)
オンライン (Zoom Webinarによる)



当日の写真

당일 사진

제69회 SGRA 포럼

제7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2022년 8월 6일(토요일) 오후 2시~오후 5시(한국시간)
온라인(줌 웨비나)



第69届SGRA论坛

第7届日本・中国・韩国国史对话的可能性

『“历史大众化”与东亚历史学』

2022年8月6日(周六) 下午1:00至下午4:00(北京时间)
线上 (Zoom Webinar)



当天照片



第7回国史たちの対話は、「『歴史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をテーマに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李恩民先生（桜美林大学）の総合司会でスタートしました。円滑で活発な議論のために、口頭発言には日中韓3言語の同時通訳が、チャットに書き込まれた意見には3言語の同時翻訳が付きしました。

제7회 국사들의 대화는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을 주제로 온라인 개최돼, 리언민 선생님(오비린대)의 종합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원활하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구두발언에는 한중일 3개 국어 동시통역이, 채팅창에는 3개 국어 동시번역이 제공됐습니다.

第7届国史对话以“‘历史大众化’与东亚历史学”为主题线上举办，由总主持人李恩民老师（樱美林大学）拉开帷幕。为促进讨论顺利进行，口头报告的部分会议安排了中日韩三语同声传译，对聊天栏的评论则安排了三语的同时翻译。

最初に彭浩先生（大阪公立大学）より開催趣旨として、国史たちの対話のこれまでの経緯や今回のテーマ設定についてご説明がありました。

가장 먼저 평하오 선생님(오사카공립대)께서 개최 취지로서, 지금까지의 국사들의 대화 경위와 이번 주제 설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首先彭浩老师（大阪公立大学）在举办主旨中介绍了国史对话的发展历程，并对本次会议的主题设定进行了说明。





今回のテーマを提案してくださった韓成敏先生（高麗大学）から「『歴史大衆化』について話しましょう」と題して問題提起がありました。

이번 주제를 제안해 주신 한성민 선생님(고려대)께서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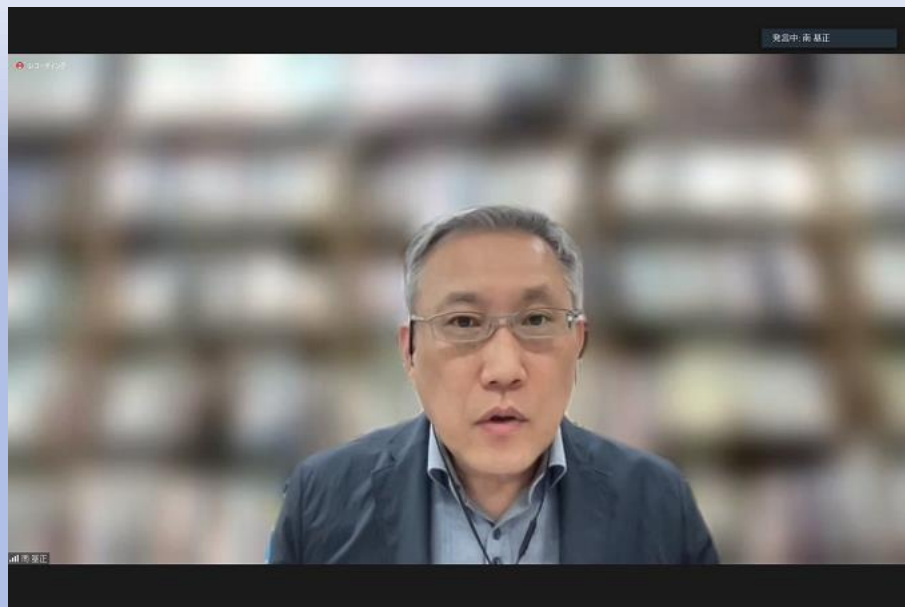
本次会议主题由韩成敏老师（高丽大学）提议，韩老师以“一起来思考‘历史大众化’”为题目提出了问题。



韓先生の問題提起に対して、中国の鄭潔西先生（温州大学）、日本の村和明先生（東京大学）、そして韓国の沈哲基先生（延世大学）から指定討論者としてコメントをいただきました。さらに指定討論に対する韓先生のコメントをいただいて、第1セッションが終了しました。

한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 정제시 선생님(원저우대), 일본 무라 가즈아키 선생님(도쿄대), 그리고 한국 심철기 선생님(연세대)께서 지정토론자로서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정토론에 대한 한 선생님의 코멘트가 있었고, 이것으로 제1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对于韩老师提出的问题，中国的郑洁西老师（温州大学）、日本的村和明老师（东京大学）以及韩国的沈哲基老师（延世大学）作为指定讨论者做了点评。在韩老师回应各位老师的评论后，第一场结束。



休憩をはさんで、第2セッションでは南基正先生（ソウル大学）の司会で自由討論が行われました。

휴식을 취한 뒤, 제2세션에서는 남기정 선생님(서울대)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이뤄졌습니다.

休息过后，第二场在南基正老师（首尔大学）的主持下进行了自由讨论。

自由討論に先立ち、劉傑先生（早稲田大学）より論点整理がありました。

자유토론에 앞서, 류지에 선생님(와세다대)께서 논점정리를 해주셨습니다.

进入自由讨论之前，刘杰老师（早稻田大学）进行了论点整理。



第一是历史学者难以克服的问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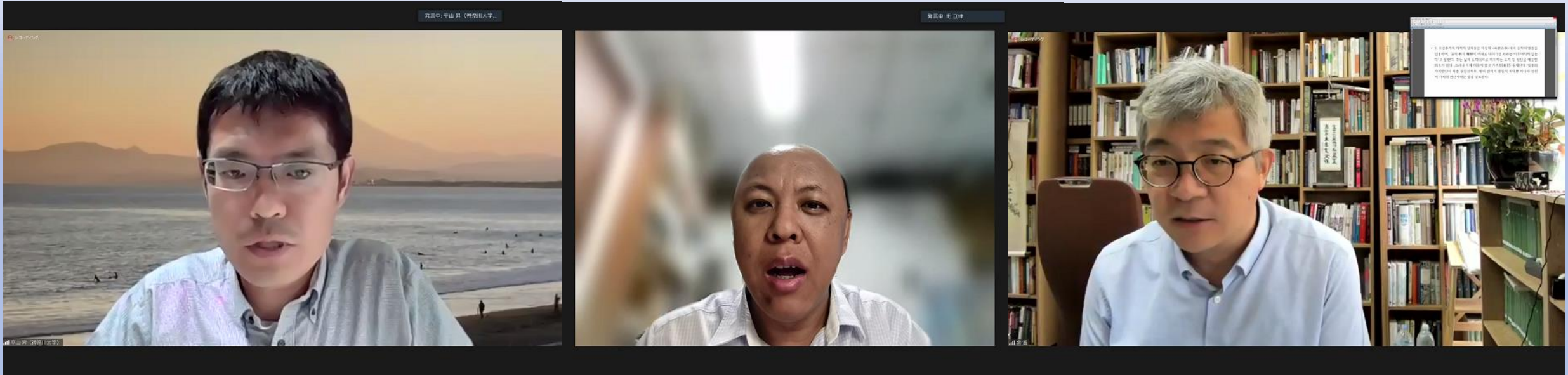
• 历史和政治的问题。历史问题时常是以政治、外交的形式出现的。历史变成了政治的工具。政治对历史的制约甚至破坏。而这个问题，在不同的国家内有不同的表现形式。

①历史的解释权并没有掌握在历史家的手里。

②历史与爱国的问题。爱国的正义性与历史学的科学性。大众的正义性。

③历史的大众化。史料的数字化。

④作为学問の歴史学的低潮



劉傑先生の論点整理を受け、平山昇先生（神奈川大学）、毛立坤先生（南開大学）、金滸先生（ソウル大学）から自由討論の口火を切るご発言がありました。

류지에 선생님의 논점정리 뒤, 히라야마 노보루 선생님(가나가와대), 마오리쿤 선생님(난카이대), 김호 선생님(서울대)께서 자유토론의 막을 알리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刘杰老师的论点整理之后，平山升老师（神奈川大学）、毛立坤老师（南开大学）、金滸老师（首尔大学）首先在自由讨论中进行了发言。



自由討論の様子

자유토론 모습

自由讨论的情景

自由討論には、問題提起、指定討論の先生方はもちろんのこと、過去6回の「国史たちの対話」に参加して下さった研究者が参加し、活発な議論が交わされました。

자유토론에는, 문제제기, 지정토론자 선생님은 물론, 과거 6번의 '국사들의 대화'에 참가해 주신 연구자들께서 참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在自由讨论环节，除了提出问题、指定讨论的各位老师以外，参与前6届“国史对话”的各位研究人员也参加了本次会议，进行了积极讨论。





自由討論で発言してくださった塩出浩之先生（京都大学）、宋志勇先生（南開大学）、佐藤雄基先生（立教大学）

자유토론에서 발언해 주신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교토대), 송쯔용 선생님(난카이대), 사토 유키 선생님(릿쿄대)

在自由讨论中发言的盐出浩之老师（京都大学）、宋志勇老师（南开大学）、佐藤雄基老师（立教大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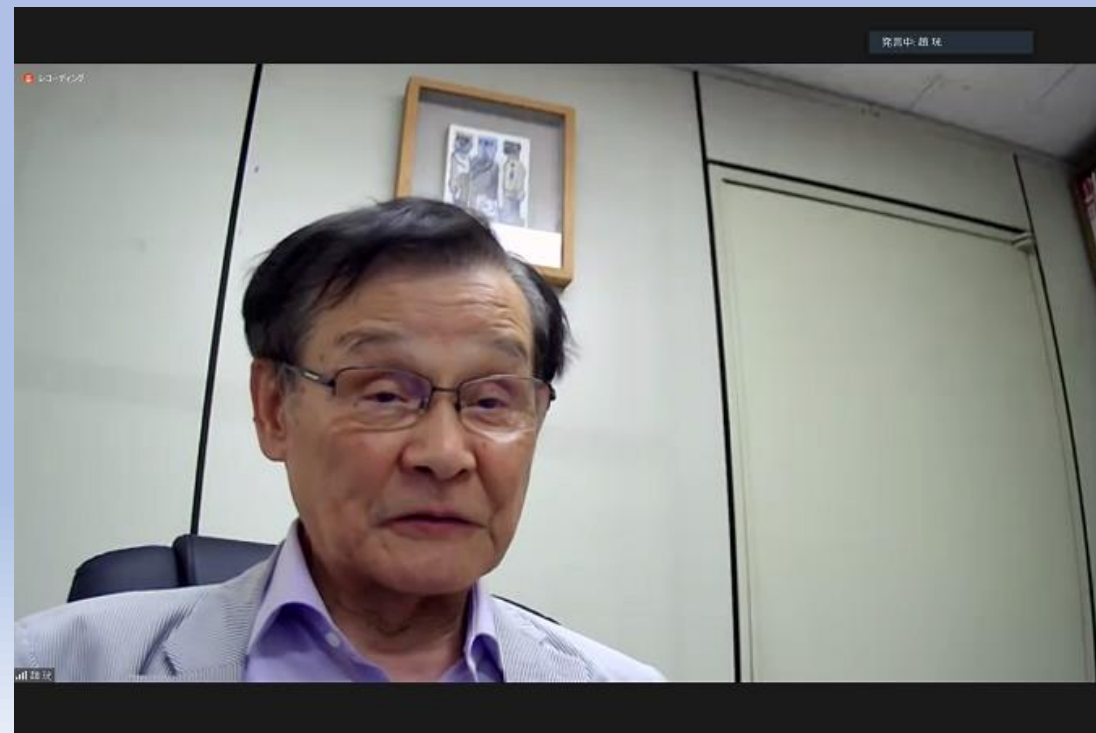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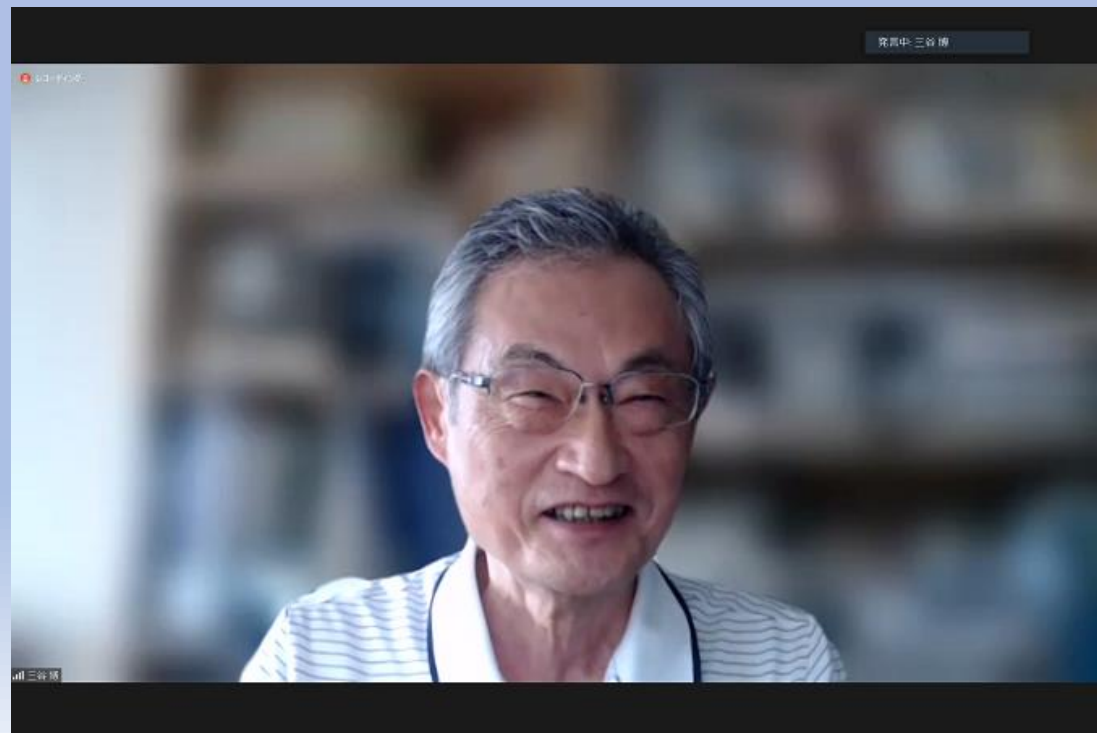




続く第3セッションでは、再び李恩民先生の司会に戻り、三谷博先生（東京大学名誉教授）に今回の対話を総括していただきました。次いで趙珖先生（高麗大学名誉教授）に閉会のご挨拶をいただき、第7回国史たちの対話は盛会のうちに終了しました。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다시 리언민 선생님의 사회로 돌아가,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도쿄대 명예교수)께서 이번 대화 전반을 총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조광 선생님(고려대 명예교수)의 폐회사로써 제7회 국사들의 대화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在第三场中，李恩民老师再次担任主持，三谷博老师（东京大学名誉教授）对本次对话进行了总结性发言。随后赵珖老师（高丽大学名誉教授）致闭幕词，第7届国史对话圆满闭幕。





最後に、毎回プロ
フェッショナルな通訳
で「国史たちの対話」
を支えてくださってい
る同時通訳の先生方も
一緒に参加者の記念撮
影が行われました。先
生方、ご視聴くださっ
たみなさま、どうもあ
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마지막으로 매번
프로페셔널한 통역으로
'국사들의 대화'를
도와주고 계시는 동시
통역 선생님들도
포함해, 참가자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最后，支持历届“国史对
话”顺利进行的各位专业
翻译的老师也一同进
行了与会者合影留念。
感谢各位老师与观众们
的积极参与。